

I. 복 식 (服 食)

1. 남자의 의복 (男子衣服)

조선 시대에는 남자 중심의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의복이 다양하게 발달하였고, 그 종류도 많았다. 평상복의 종류로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출복의 종류는 남자의 것이 월등하게 많았으며, 특히 벼슬아치들이 입는 공복은 신분과 직책에 따라 모양과 색깔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1] 평 상 복 (平常服)

남자가 입는 전통 한복의 평상복은 저고리와 바지, 버선·감방·양말, 마고자, 조끼, 소창옷 등이다. 이들 의상은 남녀자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입었던 옷인데,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복식이다. 다만, 감발이나 소창옷이 지금에 와서는 볼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1) 저고리와 바지

저고리는 남녀가 입는 옷의 통칭인데, 삼국시대에는 유·복삼(複衫) 또는 위해(尉解)라고 불렀으며, 고려 충렬왕 (1275~1308)이후부터 '저고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저고리의 만들새는 남·녀가 같게 되어 있으나, 다만 남자 저고리는 여자 저고리보다 '길'이 길게 되어 있을 뿐이다. 저고리의 각 부분의 명칭을 살펴보면 길, 진동, 수구, 화장, 겹섬, 깃, 동정, 고대, 도련, 고름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바지는 아랫도리에 입는 옷인데, 말기가 있고 다리를 꿰는 두 가랑이가 있다. 한복의 바지는 솜바지, 겹바지의 구별이 있는데, 바지의 각 부분의 명칭을 살펴보면 마라폭, 큰살폭, 작은 살폭, 배래기, 부리, 허리, 까마귀머리 등으로 구분된다. 바지를 입은 후에 버선이나 양말을 신고 발목에 대님을 매었다.

(2) 버선과 감발

버선의역사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득한 옛날부터 발을 보호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사용해 왔다. 이 버선은 곡선미를 갖춘 아름다운 맵시를 지니고 있어 '외씨 같은 버선'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실용면에서 보면 발을 옥죄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행세하는 선비 집안에서는 남녀 모두가 이 '외씨 같은 버선'을 예쁘게 만들어 신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 흥덕왕(興德王) 때의 기록에 '능라족건(綾羅足巾: 비단 버선)에 버선목을 달아붙여 멋을 부리고 다투어 버선에 사치를 부리는지라. 흥덕왕이 법으로써 이를 금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멋진 버선을 신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 시대의 버선은 요즈음의 '타래버선'과 비슷하게 생긴 일종의 발덮개였다고 하며, 오늘의 모양과 같은 버선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오는데, 조선 왕조시대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이 모두 비슷한 모양의 버선을 신었다.

그리고 행세하는 양반들은 여름에도 버선을 예쁘게 갖추어 신었지만,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은 대개가 맨발이었고 추운 겨울에는 버선 대신에 '감발'을 착용했다. 이 '감발'은 약 150cm 정도되는 기다란 무명 형겅으로 발을 감아서 방한 효과를내도록 한 것인데, 작업이 끝나면 풀어서 세탁해 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버선의 각 부분 명칭을 살펴보면 수늬, 뒤통지, 앞부리, 볼목, 뒤통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3) 양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말은 개화기에 서양 선교사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전래되었다고 한다. 천주교에 입교한 베드로 신대보(申大輔)가 요한 이여진(李如眞)을 찾아가서 프랑스 선교사 샤스탕 신부(神父)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요한은 장롱 뒤편에서 양말을 꺼내 놓고 베드로에게 신어보라고 했다. 어린 아이의 발에나 신을 수 있는 작은 양말을 처음 본 베드로는 "놀리지 마십시오. 어른이 어떻게 어린 아이의 신발을 신을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말하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이란 지극히 공평한 것으로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에 열중

하면 신부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양말이 어른이나 아이들의 발에 모두 신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작은 어린 아이의 양말을 신어 본 베드로는 크게 깨달았다고 하며, 그는 1839년에 순교하였다.

19세기 초엽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양말은 선교 활동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이것이 도시에서 실용화되기 시작하여 젊은 연령층과 학생들이 애용하였는데 지금은 버선이 차지했던 자리를 양말이 대신하게 되었다.

(4) 마고자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걸쳐 입는 옷옷의 일종인데 모양은 저고리와 비슷하나 고름과 깃이 없으며, 셔는 여미지 않고, 두자락을 맞대기만 하는 옷이다.

대개의 경우 비단으로 만들어 호박(琥珀)등의 곱고 화려한 마늘쪽 모양의 단추를 1~2개 달았으며 방한복으로 겨울에 주로 입었다.

마고자는 원래 중국의 마괘자(馬 子)라는 옷을 우리 의복으로 개조한 것이라 하며, 흥선 대원군이 청(淸)나라에 가 있을 때에 처음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5) 조끼

조끼는 배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고리나 적삼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고 주머니가 달린 옷이다. 일명 동의(胴衣)라고도 하는 이 조끼는 1910년경 외래문화와 더불어 양복이 우리나라에 유행하면서 널리 전파된 옷이다. 양복의 와이셔츠 위에 덧입는 조끼를 한복 저고리 위에 입는 것이 유행되어 지금은 생활화 되어 있다. 옛날에는 조끼가 없었으므로, 배자를 입었다. 앞이 짧고 그 뒤가 길며 앞에서부터 끈이 돌아와 앞에서 매게 되어 있던 남자의 배자는 조끼가 유행하면서 없어졌다.

(6) 토시 (吐手·套袖)

토시는 '투수' 또는 '투수'라고도 하는데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 제구이다.

저고리 소매와 비슷한데 한 끝은 좁고 다른 한 끝은 넓다. 보통 추위를 막기 위하여 무명이나 비단, 모피(毛皮)등으로 만드는데, 여름철에는 땀이 옷에 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등(藤)이나 말총으로 만든 여름 토시도 있다.

(7) 행전

남자가 바지를 입고 다닐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을 행전이라고 한다. 반듯한 형상으로 소맷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두 개의 끈을 달아서 돌려매게 되어 있다. 이 행전은 개화기 이후부터는 평상시에 착용하지 않았고 상복이나 예복을 입을 때만 사용했다.

(8) 소창옷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치막 밑에 입는 옷옷의 하나이다.

소매가 좁고 무가 없다. '소창옷'을 줄여서 '창옷'이라고도 하는데 소매가 두리가 없고 무 없이 양 옆을 뒀다. 선비들이 일상복으로 입었다.

(9) 보부상(褌負商)의 옷차림

보부상은 주먹만한 솜뭉치를 단 패랭이를 머리에 쓰고 용을 새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못짐 장수와 등짐 장수를 말한다.

조선 왕조 시대의 보부상은 규율과 신의를 지키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양식을 공급하였으며 나라의 전령(傳令)이나 치안(治安)을 도왔다.

[2] 외 출 복 (外出服)

남자가 외출하게 되면 반드시 바지·저고리 위에 격식에 맞는 외출복을 입어야 했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나타나면 천한 백성으로 여겼다. 따라서 대문밖을 나서자면 반드시 의관을 갖추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루마기, 중치막, 도포, 삼의, 학창의 등이 있는데 그 옷차림은 다음과 같다.

(1)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옷으로서, 주로 외출할 때나 제사 등의 격식을 갖추어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며 무, 셔, 깃 등이 있다. 철에 따라 솜두루마기, 겹

두루마기, 박이두루마기 등을 갈아 입었으며, 이 두루마기를 '도량창옷', '주막의(周莫衣)' '주의(周衣)', '주차의(周遮衣)'라고도 부른다. 옛날에는 선비들이 두루마기를 속에 입는 옷으로만 사용하였고, 겉옷으로는 입지 않았다.

중치막을 입을 때에 밀받침 옷으로 창의를 입었고, 창의만 입을때에는 두루마기를 밀받침 옷으로 입었다. 따라서 사대부(士大夫)는 두루마기나 창의를 입은 위에 중치막이나 도포를 입고 외출했고, 상민들은 창의나 두루마기를 옷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중치막이나 도포는 입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두루마기의 각 부분별 명칭을 살펴보면 길, 진동, 수구, 화장, 무 겹섶, 안섶, 깃, 동정, 고대, 도련. 배래기, 옆트기, 고름 등으로 분류된다.

(2) 까치 두루마기

오색(五色) 옷감으로 지은 두루마기인데, 설날에 아이들의 설빔으로 입었다.

두루마기는 주로 외출할 때에 입는 옷인데 옷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며 무, 섬, 깃 등이 있다. 색동저고리, 까치 두루마기, 꽃버선, 그리고 여자 아이의 연봉치마 등은 명절 복식으로서 매우 호사스러운 옷맵시를 지니고 있었으며 어린 아이들은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명절을 기다리며 큰 기대속에 날짜를 다져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다.

(3) 중치막(中赤莫)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길며 앞은 두 자락, 뒤는 한자락으로 되었는데 무가 없이 옆이 터진 네쪽으로 된 옷옷이다. 옛날에는 백두(白頭)가 입었다.

백두(白頭)란 지체는 높으나 벼슬하지 않은 양반을 뜻하는 말인데, '민머리'라고도 하였다.

(4) 도포(道袍)

통상에복으로 입던 겉옷인데 소매가 넓고 뒤술기를 뒀으며 그 위에 덧폭을 붙였다. 깃이 곧아서 현대의두루마기의 깃과 같으며 동정이 있다. 그리고 섶과 무가 있으며 뒤에 붙인 덧폭(전상: 展衫)이 바람에 펄럭이는 멋을 지니고 있다. 도포 차림에는 유건(儒巾)이나 갓을 썼다.

(5) 심의 (深衣)

학문과 도덕이 높은 선비가 입는 옷인데 흰 베로 만든다.

소매가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둘렀으며 상(裳)은 열 두 폭으로 되어 있다. 심의를 입은 선비는 머리에 복건을 썼다.

[3] 예복(禮服)

(1) 전복 (戰服)

옛날 군복(軍服)의 한가지인데, 짙은 색으로 짓고 소매가 없으며 뒷술기가 뒀고 구군복(具軍服)에 겹쳐 입었던 옷이다. 이 전복을 쾌자(快子)라고도 하는데 조선 초기에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착용하였다가 후세에 와서는 하급 군속(下級軍屬) 및 조례의 제복으로 만 착용하게 되었으므로 전포(戰袍)라고 불렀으며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는 관원(官員)의 보통 때의 옷옷으로 착용하기도 했다. 최근에 와서는 명절이나 돌날에 어린 아이에게 이 쾌자를 입히고 머리에 복건을 씌우는 풍습이 유행하고 있다.

2. 여자의상(女子衣裳)

우리 한국 여인네들이 입던 전통 의상은 평상복, 외출복, 예복 등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평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의복이며, 외출할 때에 평상복 위에 장옷이나 천의를 걸쳐 입었으며 예식이나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에는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며진 예복을 입었다.

[1] 평상복(平常服)

여인들이 입는 평상복은 치마와 저고리인데, 우리 한국 여성의 치마·저고리는 아름다운 맵씨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삼회장 저고리의 멋과 어린 소녀들이 입는 색동 저고리의 화려함은 우리 복식 문화의 자랑거리이다. 이에 그 아름다운 여성 의상의 구조를 고창하고

자 한다.

(1) 저고리

저고리의 종류에는 속저고리·깨끼저고리·물겹저고리·반회장저고리·삼회장 저고리·숨저고리·색동저고리·까치저고리·누비저고리 등이 있으며 옷감은 계절에 따라 마(麻)·면(綿)·견(絹)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색깔은 흰색과 옥색을 많이 애용하였다. 특히, 저고리의 자주색 고름과 땡기는 부부 해로(偕老)를 의미하고 남끝 동은 아들이 있음을 나타낸다.

저고리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면 길, 진동, 소매, 쇄, 깃, 동정, 수구, 도련, 배래기, 고대, 고름 등으로 부르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한국 여성의 맵시를 잘 나타내도록 아름다운 곡선미를 지니고 있다.

(2) 회장 저고리

보통의 저고리보다 좀더 미적인 꾸밈으로 더욱 젊고 화사한 저고리가 있다. 여자의 저고리 깃, 끝동, 겨드랑이, 고름 따위에 색형꺠으로 꾸미는 것은 회장(回裝)이라고 하며 삼회장 저고리와 반회장 저고리를 회장 저고리라고 총칭한다. 저고리의 깃, 끝동, 고름만을 자주색이나 남색의 형꺠으로 대어 꾸민 것을 반회장 저고리라 하고 깃, 끝동, 겨드랑이, 소매부리, 고름에 자색이나 남색의 형꺠으로 이어 꾸민 저고리를 삼회장 저고리라고 한다.

(3) 색동 저고리

오색 비단 조각을 잇대어서 만든 저고리의 소맷길을 '색동'이라고 하는데 이 색동 저고리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입었다. 이 색동저고리를 '까치 저고리'라고도 불렀으며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꼬가옷'·'곱개옷'등으로 불렀으며 명절 때가 되면 이 색동옷을 곱게 입고 자랑스럽게 뛰어 놀며 기뻐하였다.

[2] 외출복(外出服)

조선 시대의 여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할 수 없었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가마를 타고 갈으며 가마를 탈 수 없는 경우에는 머리에서 얼굴과 몸매를 덮어 가리우는 기다란 가리개옷을 입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장옷과 천의(天衣)였다. 여인들이 외출복을 입은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장옷(長衣)

옛날에 부녀자들이 나들이 할 때 머리에서부터 내리썩 온 몸을 가리던 옷을 장옷이라고 한다. 생김새는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초록색 바탕에 흰 끝동을 달았다. 젊은 여자는 청색, 녹색, 황색을 많이 쓰고 늙은 여자는 흰색 계통을 사용했는데 장의(長衣)라고도 했다. 장옷을 입는 목적은 남녀 유별이라는 내외법(内外法)에 따라 얼굴과 몸매를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여자들이 착용했는데 우리 속담에 '장옷 입고 옛 먹기'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점잖고 양전한 체하지만 뒤로는 좋지 못한 짓을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장옷은 형식적이고 비활동적인 복식이었다.

(2) 천의(天衣)

천의는 '처네' 또는 '머리 처네'라고도 부르는데 여자가 나들이 할 때에 장옷과 같이 머리에 쓰는 물건이다. 마치 두렁치마와 비슷하며 자주 빛깔의 형꺠으로 만들었다.

[3] 예복 (禮服)

여자의 예복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원삼(圓衫)이다.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혼례식에는 신부의 대례복으로 원삼을 입었고, 상류계층의 여자 대례복으로 활옷을 입기도 했으며, 궁중에서 소례복으로 사용하던 당의(唐衣)는 사대부(士大夫)의 부녀자들도 입었는데, 이들 예복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원삼(圓衫)

원삼은 여자의 대례복(大禮服)인데, 신분에 따라 그 색과 문양을 달리했다. 원삼은 왕비·빈궁·공주·옹주·내명부·외명부 등이 입는데, 그 문양과 색깔이 달랐으며 다만 서민층의 여자는 혼례식에만 입을 수 있는 신부의 예복으로 허용되었다. 원삼은 입기 전에 먼저 청홍상(靑紅裳)에다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첩지를 꽂는다. 청홍상은 청색 또는 남색 치마를 입은 위에 다시 빨강색 치마를 겹쳐 입는 것을 말한다. 원삼은 신라 문무왕 4년에 여복을 개혁할

때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한다.

(2) 한삼(汗衫)

예복을 갖추는 때에 손을 가리기 위하여 두루마기나 여자의 저고리 소매 끝에 흰 헝겊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를 한삼이라고 하는데 일명 백수(白袖)라고도 한다. 혼례식에 신부가 입는 원삼이나 활옷에는 한삼을 사용했으며 궁중 무용에 입는 몽도리를 입은 무희들도 손에 한삼을 착용했다.

(3) 활옷(闊衣)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공주나 왕자의 대례복으로 입었고 상류 계급의 혼례복으로도 사용한 활옷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예복의 하나이다.

활옷은 어원(語源)은 화의(華衣)·화의(花衣)·활의(闊衣)로 변음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활옷은 무가 없이 옆에 트이고 앞자락이 둘, 뒷자락이 하나로 되어 모두 세자락이며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이 앞자락보다 20cm정도가 더 길다. 깃은 달지 않으며 고대만 박고 흰색의 동정을 단다. 다홍색 바탕에 장수(長壽)와 길복(吉福)의 뜻을 지닌 십장생(十長生)의 무늬를 옷 자체에 수 놓고, 등에는 이성지합(二姓之合)·만복지원(萬福之源)·수여산(壽如山)·부여해(富如海)의 글자를 수 놓으며 양 어깨에는 동자(童子)를 수놓는다. 남색 안에 넣으며 소매 끝에는 황색·홍색·남색의 색동을 달고 소매진동 아래는 튼다. 혼례 때에 화판(華板)의 금박을 찍은 남색과 홍색의 스란치마를 겹쳐 입고 삼회장 저고리를 입은 위에 활옷을 입고 홍단(紅緞), 봉대(鳳帶)를 앞가슴 위에 띠되 뒤에는 매어 늘인다. 머리는 뽕머리(첩지머리)에 비녀는 용장(龍簪)을 꽂고 도투락 땡기와 앞줄땡기를 하고 칠보화관(七寶花冠)을 쓴다.

오늘날에는 신식 혼례식이 보편화되어 혼례복으로 입지 않는 활옷은 폐백복(幣帛服)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4) 당저고리(唐衣)

당저고리는 당적삼·당한삼·당의(唐衣)라고도 부르는데 조선 시대에 여자들이 입었던 예복의 하나이며 저고리를 입은 위에다 당저고리를 덧입었다. 조선시대에 궁중에서는 평상복으로 사용하다가 조선말기부터 소례복(小禮服)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에는 가슴·등·양어깨에 흉배를 붙였다. 색깔에 따라 연두당의·자주당의·남송(南松: 노랑색)당의·백당의 등이 있는데 연두당의를 가장 많이 입었다.

당의의 형태는 저고리와 비슷하나 앞길과 뒷길이 저고리보다 길어서 입었을 때 무릎 근처까지 달고 도련은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다. 옆은 진동선 이하가 트여 있어 앞길은 좌우 두 자락이고 뒷길은 한 자락으로 되어서 모두 세 자락이다. 소매 끝에는 창호지를 속에 넣은 흰 천으로 거들지를 달았다.

겨울철의 겹당의는 비단으로 지었고, 여름철의 홑당의는 사(紗)종류로 지었는데 겉은 연두색 또는 초록색이 보통이었고 안은 다홍색 삼팔을 궁다듬이질하여 넣었으며 자주색 고름을 달았다.

(5) 스란치마

당의를 입으려면 먼저 스란치마에 저고리를 갖춰 입는다. 스란치마는 입으면 발이 보이지 아니하는 폭이 넓고 긴 치마인데 단 밑에 금박을 박은 천을 덧붙였다. 이것을 스란단이라고 하는데 왕비는 용의 무늬로 하고 공주와 왕주는 봉황 무늬로 하며 사대부의 여자는 꽃무늬였다.

3. 관모(冠帽)

머리에 스는 갓(笠子)과 망건(網巾)을 합쳐 관망(冠網)이라고 한다. 관망을 갖추기 위하여 먼저 상투를 틀고 상투에 동곳을 꽂거나 상투관을 씌운 다음에 망건을 쓰고 이마 위에 풍장을 꽂은 후에 벼슬아치는 탕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쓴다. 벼슬이 없는 선비는 탕건을 쓰지 않은 채 망건 위에 갓을 썼다.

옛날 남자의 머리에 쓰던 관모(冠帽)는 건(巾)의 종류, 관의 종류, 사모(紗帽), 방한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분 제도가 엄격하던 저근대사회에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에 따라 또는 양반·중인·상인·천민 등의 신분에 따라 머리에 쓰는 관모도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승려(僧侶)들만이 쓰는 관모도 따로 있었다.

[1] 상 투

상투는 장가 든 남자가 머리털에 끌어올려서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매는 것인데 대개 망건을 쓰고 동곳을 꽂아 매었다. 그리고 머리털이 적은 노인은 검은 종이 또는 검은 베로 만든 상투관을 상투에 씌우기도 했다. 미혼 총각들은 머리를 따서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다가 결혼을 하거나 관례(冠禮)를 올리면 상투를 하고 갓을 쓰는데 이 상투는 성인 남자의 상징으로서 상투한 남자는 어른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 상투에 꽂은 동곳은 상투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식품인데 금·은·밀화·호박·마노·비취 산호 옥 나무등으로 만들었다. 길이는 약 4cm이며 대가리 부분은 반구형이고 밑은뾰족하여 약간 굽은 것 또는 굽지 않은 것이 있다. 또 어떤 것은 말뚝 모양의 것도 있는데 이 동곳은 기혼 남자의 머리 수식에 필수품이다.

[2] 건속(巾屬)

건(巾)은 형견 따위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의 총칭인데 대체로 망건(網巾), 복건, 탕건(宕巾), 유건(儒巾), 평정건(平頂巾), 전건(戰巾), 두건(頭巾)등이다. 이들 여러 가지 건(巾)들은 신분에 따라 착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두건은 상제(喪制)만이 쓰는 건이며, 복건, 탕건, 유건 따위는 사대부(士大夫)만이 착용할 수 있었고 평정건, 전건 따위는 미천한 군졸이나 중인 계층의 아전들이 쓰는 건이다.

(1) 망건(網巾)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을 여며 매기 위해 말총으로 엮어 만든 머리띠의 한 종류인데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망건에 다는 관장(貫子)와 풍감의 재료가 달랐다. 망건은 말총을 곱게 엮어 만드는데 경우에 따라서 가늘고 부드러운 코끼리의 꼬리털(곱소리)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기도 한다. 망건의 부분 명칭은 망건당 (말총으로 고를 맺어 두른 망건 위부분)·망건편자(망건을 졸라매기 위하여 말총으로 띠처럼 곱게 짠 망건 아랫부분)·망건앞(앞싸개)·망건뒤(말총으로 촘촘히 엮어맨 망건의 양 끝으로 뒤통수를 감싸는 부분)라고 부른다.

망건의 부속물로는 관자(貫子)와 풍잠이 있다. 관자(貫子)는 망건의 아랫당줄을 꿰는 부속물인데 지름 1.2cm내외의 고리로 편자의 귀 부근에 달려 있고 벼슬아치의 품계에 따라 재료 및 조각 장식이 다르게 되어 있다. 정1품은 작은 민옥관자(도리옥), 정2품은 소형 금관자(도리금), 종2품은 대형 금관자, 정3품은 대형 옥관자, 기타의 사람은 대모, 마노, 호박, 골(骨), 각(角)등으로 만든 관자를 달았다. 정 1품이 쓰는 민옥관자는 질이 좋은 옥으로 작게 만들되 조각(彫刻)을 하지 않으며 정 2품이 쓰는 금관자도 조각을 하지 않는 소형이다. 종 2품의 금관자는 조각을 한 대형이며, 정3품의 옥관자도 조각을 한 대형이다. 관자에 조각한 무늬는 꽃(花)·대(竹)·연(蓮)등이었다. 풍잠(風簪)은 망건당 중앙에 꾸미는 장식품인데 갓을 고정시키는 구실을 한다. 갓모자가 풍장에 걸쳐 바람이 불어도 갓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구실을 한다. 상류층에서는 대모·마노·호박 등을 사용했고 일반인은 골(骨)·각(角)을 사용했다. 망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망건집'에 넣어서 보관한다.

(2) 복 건

복건은 도인(道人)들이 입는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건(巾)이다. 옛날에는 퇴계(退溪)선생, 율곡(栗谷)선생 같은 학문과 도덕으로 이름 높은 명현들이 도복을 입은 차림으로 복건을 머리에 쓰고 다녔다. 복건은 검은 형겅으로 위는 둥글고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뒤에는 넓고 긴 가락을 늘어지게 대고 양 옆에 긴 끈이 있어서 뒤로 돌려 매게 되어 있다.

개화기 이후부터 복건을 쓰는 어른이 점점 사라진 대신에 민간에서 어린 사내아이에게 명절 때나 돌날 또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때에 쾌자(快子)를 입히고 복건을 씌우는 풍습이 생겼다. 그러나 간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양복이나 유아복이 널리 생활화된 지금에 와서는 복건을 씌운 아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돌 잔티할 때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임시로 입히는 예가 가끔 있을 뿐이다.

(3) 탕건(宕巾)

탕건은 말총이나 쇠꼬리털로 제작하는 남자용 모자의 일종인데 사모(紗帽)나 갓 대신 평상시에 쓰는 모자로서 양반이 집안에서 맨 상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착용하던 것이다. 벼슬아치들이 외출할 때에는 탕건위에 갓을 얹어 쓰고 다녔지만 벼슬이 없는 보통 양

만들은 망건 차림으로 갓을 쓰고 다녔는데 개화기 이후부터 문란해 졌다.

(4) 유건(儒巾)

유건은 유생(儒生)들이 쓰던 예관(禮冠)으로 '민자건(民字巾)'이라고도 하는데 검은 베로 만들었다. 유생이라 함은 유학(儒學)의 도(道)를 배우는 선비를 말하는데 옛날에 성균관(成均館)이나 서원(書院)에서 수학하는 선비들이 유건을 쓰고 다녔으며 제향(祭享)을 올릴때에 예관(禮冠)으로 사용했다.

(5) 평정건(平頂巾)

평정건은 서리(書吏)나 이속(吏屬)들이 사무를 볼때에 쓰던 건인데, '파리머리'라고도 부른다. 모양은 탕건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평정건 위에는 갓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서리는 서울에 있는 각 관아의 아전(衙前)을 말함이고, 이속은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들인데 모두 종인들이었다.

(6) 전건(戰巾)

전건은 군졸(軍卒)들이 머리에 쓰던 건인데 마치 깔대기처럼 꼭지가 뾰족하게 생긴 원뿔 모양의 건이다. 전건을 '깔대기'라고도 부르는데 두꺼운 종으로 곱갈 비슷하게 접고 안쪽에 넓직한 두꺼운 종이 판을 세워 붙이고 전체에 검은 칠을 한 것이다.

(7) 두건(頭巾)

두건은 남자 상제나 어른된 복인(服人)이 상중(喪中)에 베로 만들어 머리에 쓰던 건인데, 위를 막고 아래는 네모지게 만들었다. 두건을 '효건(孝巾)'이라고도 부르며 상주(喪主)는 두건위에 굴건(屈巾)을 덧쓰고 수질을 엮었다.

[3] 입 자 류 (笠子類)

입자(笠子)란 갓의 총칭인데 입자류에 속하는 것으로는 관례를 한 소년이 쓰는 초립(草笠), 어른이 쓰는 갓, 옥로(玉鷲)로 꾸민 옥로갓, 무관이 쓰는 전립(戰笠), 하인들이 쓰던 말뚝 병거지, 천민이나 상제가 쓰던 패랭이, 상제가 외출할 때 쓰던 방갓 등이 있었다.

(1) 초립 (草笠: 풀갓)

초립은 나이가 어린 사내로서 관례(冠禮)를 한 사람이 쓰는 갓인데, 누른 빗짚의 가는 풀로 결어 만들었다. 본디 참골품로 만들었던 것을 조선시대 초기의 사족(士族)들은 가는 대오리나 말총으로 곱게 만들어 쓰고 서민들은 굵은 대오리나 짚 등으로 거칠게 만들어 쓰다가 조선후기에 폐지되었다. 이 초립을 쓴 소년을 오립동(草笠童)이라고 했으며 초립동 이외에 별감(別監)·서리(胥吏)·광대 등도 초립을 썼다.

(2) 갓(笠子)

갓은 어른이 된 양반이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의 하나인데, 가느다란 대오리로 갓양태와 갓모자를 만들어 붙인 위에 갓싸개를 바르고 먹칠과 옷칠을 한 것이다. 갓모자는 말총으로 만들기도 하며 갓끈을 달아서 쓴다. 갓 모자는 갓의 양태 위에 우뚝 솟은 부분을 말하며 갓양태는 갓의 밑둘레 밖으로 넓게 바닥이 된 부분이다. 버렁은 갓 양태의 가운데가 갓의 가나 갓모자의 접착부보다 붕긋이 솟아 오른 부분을 말하며 갓철대는 갓양태의 테두리에 두른 테를 말한다.

갓끈은 형견을 접거나 나무·대·금패(錦貝)·대모 등을 꺾어서 갓에 달아 쓴다. 벼슬아치의 갓은 갓끈에다 영자(纓子) 또는 구영자(鉤纓子)라는 물건을 달았다. 모양은 두 끝이 길고 꼬부라져서 'S'자와 비슷한데 중2품 이상은 은에다 도금한 것을 쓰고 3품 이하의 은으로 만든 영자를 달았다.

갓은 너무 커서 활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개화기이후부터 작은 갓을 썼다.

(3) 옥로갓 (玉鷲笠)

옥로갓은 갓모자 꼭지에 옥로를 단 것이다. 옥로(玉鷲)는 옥(玉)으로 해오라기(鷲) 모양을 조각하여 갓머리에 다는 장신구인데, 고관이나 또는 외국에 사신(使臣)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각 도(道)의감사(監司)들이 사용했다. 현재 현충사(顯忠祠)에 보존되어 있는 이충무공의 옥로는 유명하다.

(4) 전립(戰笠)

전립(戰笠)은 병자호란 이후에 무관(武官)이 쓰던 전립을 말한다. 붉은 털로 만들어 둘레에 끈을 꼬아 두르고 공작새의 깃털·상모(象毛)·옥로(玉鷲)등을 달아 장식하였으며 안은 남색의 운문대단(雲韻大緞)으로 꾸몄다. 전립은 '군뢰복다기'라고도 하는데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군뢰(軍牢)가 군장(軍裝)할 때에 쓰던 병거지였다. 군뢰를 '뇌자(牢子)' 또는 '거리치'라고도 불렀다.

이 '군뢰복다기'라는 전립은 붉은 전으로 만들었는데 전을 걸어 올린 데에다 앞 이마에 길이 10cm 넓이 8cm되는 주석으로 만든 '용(勇)자를 붙이고 증자에 청전우(靑轉羽)를 달았다.

(5) 말뚝 병거지

말뚝 병거지는 마부(馬夫)나 구종(驅從)들이 쓰던 전립(戰笠)의 일종인데 모자 꼭지가 원뿔 모양으로 뾰족하다. 병거지는 짐승의 털을 다져서 일정한 틀에 넣어 만든 모자인데 전립(戰笠)또는 병립(兵笠)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궁중이나 반가(班家)의 군노(軍奴)나 하인이 쓰던 모자로서 대개의 흑의(黑衣)와 병용하거나 전령복(傳令服)에 사용했다. 모양은 약 10cm정도의 테가 있고 모자 부분은 둥글게 되어 있으며 꼭대기에 정자(頂子)를 달았다. 여기에 상모(象毛)와 공작미(孔雀尾)를 구슬에 꿰어 달고 모자 밑에는 밀화주(蜜花珠)라는 구슬을 꿰어 만든 끈을 단다. 이 병거지는 농악의 잡이들이 머리에 쓰기도 하는데 다만 모자가 뾰족한 것을 말뚝 병거지라 한다.

(6) 패랭이(平涼子)

패랭이는 땃개비를 엮어 만든 갓의 일종인데 평량자(平涼子)·폐양자(蔽陽子)·평량립(平涼笠)이라고도 부른다. 이 패랭이는 역졸(驛卒)·보부상(褓負商)등 천민이나 상제들이 썼다. 모양은 통용되는 갓과 비슷한데 선비들은 평상시에 쓰지 않았고 상인(喪人)이나 천민(賤民)의 정관이였다. 역졸들은 패랭이에 검은 칠을 하여 쓰고 보부상을 패랭이 꼭지에 목화송이를 달고 다녔다.

(7) 방갓(方笠)

방갓은 상제가밖에 나갈 때 쓰던 갓인데, 발립(方笠)이라고도 한다. 대나무를 가늘게 조개어 만드는데 삿갓과 비슷하나 네 개의 화판 모양으로 네 귀가 우묵하게 파지고 그밖은 조금 둥그스름한 모양을 하였다. 신라와 백제 사람이 상용(常用)하였으므로 나제립(羅濟笠)이라 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상복(喪服)에만 썼기 때문에 '상갓' 또는 '상립(喪笠)이라고도 불렀다.

[4] 관속(冠屬)

관(冠)은 선비나 벼슬아치 등의 양반 신분을 지닌 사람만이 쓸수 있는 것인데 정자관, 동파관, 충정관, 사방관, 유자례관 같은 것이 있었다.

이들 관은 평상시에 집안에서나 마을에서 쓰고 생활하였으며 갓보다 규모가 작고 간편하여 선비들이 애용하였다.

(1) 정자관(程子冠)

정자관은 중국 송(宋)나라의 정자(程子)가 썼다는 관인데 말총으로 짜거나 떠서 만든 것이다. 위는 터지고 세 봉우리가 지게 두충 또는 세충으로 되었고 유자(儒者: 선비)가 집안에서 창이나 도포를 입고 있을 때에 갓 대신으로 머리에 썼다.

(2) 동파관(東坡冠)

송(宋)나라의 문장가로서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었던 동파 거사(東坡居士) 소식(蘇軾)이 만들어 애용했다고 전해오는 관인데, 그 모양은 정자관(程子冠)과 비슷하였다. 이 관은 나이가 지긋한 선비들이 집안에서 갓을 대신하여 평상시에 쓰던 것인데 개화기 이후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3) 충정관 (沖正冠)

충정관은 조선 왕조 초기에 사대부(士大夫)들이 머리에 탕건(宕巾)을 쓰고 그 위에 덮어 쓰던 관인데 관의 웃면이 정방형(正方形)으로 되어 있고 위로 가면서 관의 둘레가 넓게 되어 있다.

이 충청관은 평상시에 벼슬아치들이 집안에서 애용하던 것인데 조선 중엽 이후부터는 사

용하지 않은 듯하다.

(4) 사방관(四方冠)

사방관은 네모 기둥 모양으로 만든 관인데 선비들이 망건을 쓴 위에 덮어 쓰던 것이다. 총정관은 윗 부분이 점점 크게 되었으나 사방관은 아래·위가 같은 크기로 되어 있으며 탕건을 쓸 수 없는 보통 선비가 망건 차림으로 쓰던 관이었으나 조선 왕조 중엽이후부터 자취를 감춘 듯하다.

(5) 유자례관(遺子禮冠)

신라시대에 사용했던 관이라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관례(冠禮)를 행할 때에 선생(先生)이 쓰던 관이라고 한다. 관례는 성인(成人)이 되기 위한 예식인데, 관례를 올리는 대상자를 관자(冠者)라 하고 이 관례를 주재하는 사람은 선생이라고 한다. 이 때에 선생으로는 관자의 스승이나 또는 그 마을에서 학덕(學德)이 있는 노인을 초빙하여 부형의 입회하에 관례를 올렸는데 선생은 반드시 머리에 유자례관을 쓰고 정중한 태도로 관례를 진행하였다.

(6) 사모(紗帽)

사모는 관복(官服)을 입을 때에 머리에 쓰는 관모(官帽)인데 오사모(烏紗帽)라고도 한다. 이 사모는 검은 비단실로 짠 모자로서 고려말 우왕(우조)때에 명(明)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단령(團領)과 함께 관리의 공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조선 오아조 말기까지 계속 사용하였다. 벼슬아치가 공무를 처리할 때 쓰던 사모는 민가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에 신랑의 예관(禮冠)으로 쓸 수 있게 허용되었는데 남자의 결혼은 곧 벼슬하는 것과 동격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총각이 결혼할 때는 사모뿔을 양쪽에 모두 달았고 재혼할 경우에는 뿔 하나를 빼어 내고 초례를 올렸다.

[5] 방한모(防寒帽)

옛날에선인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쓰던 방한모로는 만선두리, 남바위, 휘항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남자용이었다. 그리고 만선두리는 벼슬아치만이 쓸 수 있었고, 남바위는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달랐으며 휘항은 가장 완전한 방한모로서 누구나 사용하였다.

(1) 만선두리

벼슬아치가 겨울에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방한구로써 '만선두리'를 썼는데, 모양은 휘항과 비슷하게 생겼다. 휘항과 남바위, 만선두리는 서로 비슷한 모양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사용의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었다. 특히 만선두리는 벼슬한 양반이 아니면 착용할 수 없는 귀족의 방한모였다.

(2) 남바위

겨울에 쓰는 방한모의 일종인데 '난이(暖耳)' 또는 '이엄(耳掩)'이라고도 한다.

조선초기에는 상류층 남녀만이 착용하다가 차차 서민층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모양은 머리 부분이 터지고 앞은 머리와 이마를 덮을 정도이며 뒤쪽은 길어서 목을 덮었다.

그리고 부인용은 아름다운 구슬과 수를 놓아 장식하였는데 조바위나 아얌은 이 남바위를 변형시킨 것이다.

남바위는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다른데 당산관(堂山冠)은 단(緞)이나 초피를 쓰고 당하관(堂下冠)은 초와 쥐가죽을 썼으며 민간에서는 수달피 가죽을 사용하다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족제비 가죽을 사용했다. 그리고 호사하는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은 봄이나 가을에도 춘추(春秋) 남바위를 썼다.

(3) 휘항(揮項)

휘항은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일종이며 남바위처럼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제물로 볼끼가 있어서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어 있고 볼끼는 뒤로 젖혀 매기도 한다.

휘항은 휘항(揮項) 또는 호항(護項)이라고도 한다.

[6] 승려(僧侶)의 관모(冠帽)

(1) 승관(僧冠)

약탕관을 덮어 놓은 것처럼 위가 둥그스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2) 굴갓

벼슬을 가진 승려가 쓰던 갓인데 대(竹)로 만들었고 모자 위에 둥글게 되어 있다.

(3) 대삿갓

가늘게 쪼갠 대(竹)로 만들었는데 보통의 삿갓보다 훨씬 작으며 승려가 여행할 때 썼다.

(4) 송낙(松蘿)

소나무 겨울살이로 걸어 만든 것인데 비구니(比丘尼)들이 주로 사용했다. '송낙'을 송라립(松蘿笠)이라고도 했다.